

## **Session 1 Introduction to the Signs of the Times**

### **제 1 장 시대의 표적에 대해 알기**

#### **I. INTRODUCTION**

##### **도입**

- A. Can God’s people know that they are living in the generation of the Lord’s return? The biblical answer is, “Yes.” How can they know this?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아는 것은 가능한가? 성경적인 답은 “그렇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 B. Scripture has provided much information on this topic *that believers can know*. The signs related to our Lord’s coming are not so mysterious that a believer could not, with study, understand them. A believ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determined* to gain wisdom, can understand biblical prophecy.

성경은 **성도들이 이를 알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표적들은 성도들이 공부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부분이 아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성도라면, 그리고 지혜를 얻고자 **결정한 이들이라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다.

- C. The Bible was written for the majority of humanity, who are mostly impoverished and illiterate. The understanding of the signs of the times is not meant for “special” believers. I believe that anyone,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can understand the signs of the times.

성경은 인류 대다수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인류 대다수는 빈곤하거나 문맹인 경우가 많다. 시대의 표적을 이해하는 것은 “특별한”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어느 누구라도 성령의 도우심만 있다면 시대의 표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 D. Many believers write off the study of the end-times and its signs because of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 I strongly believe that it is not the Holy Spirit who is moving the study of the end-times to the “back burner.”

많은 성도들은 마지막 때와 그때의 징조들에 대한 연구를 단념해버리곤 하는데, 이는 오해로 인해, 혹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들어서이다. 나는 마지막 때의 연구를 “단념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 E. I do not believe we can know the exact hour of Christ’s return, but I firmly believe that we can know *the season*. Jesus said that no one knows the precise hour except the Father. Could it be that some have taken that statement by Jesus as license to partially ignore the subject?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 **시즌**을 알 수 있다고 (역자주: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정확한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무시하거나 등한시 여겨도 됨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 F. Jesus rebuked the Pharisees for not discerning His coming. The Messiah whom all the prophets foretold was in their midst, but they could not discern that it was He.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오심을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sup>3</sup> *...Hypocrites! You know how to discern the face of the sky, but you cannot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Mt. 16:3)

<sup>3</sup>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 16:3)

## II. THE OLIVET DISCOURSE

###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

- A. In Matthew 24, Jesus is answering the questions of the timing of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and the sign of His coming.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4 장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그분의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sup>1</sup> *Then Jesus went out and departed from the temple, and His disciples came up to show Him the buildings of the temple.* <sup>2</sup> *And Jesus said to them...not one stone shall be left here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sup>3</sup> *Now as He sat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privately, saying,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Mt. 24:1-3)

<sup>1</sup>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sup>2</sup> 대답하여 이르시되 ...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sup>3</sup>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 24:1-3)

- B. The *Olivet Discourse* is the teaching (discourse) that Jesus gave on the Mount of Olives (Olivet). Jesus and the disciples frequented the Mount of Olives during His ministry. It is located just outside of Jerusalem beyond the eastern gate. It is the place where Jesus would often pray (Lk. 22:39), from which He ascended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fter His resurrection (Acts 1:6-12), and the place He promised His feet would stand again at His second coming (Zech. 14:4).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내용(가르침, 설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림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산은 예루살렘 동쪽 성문 바로 바깥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눅 22:39), 이곳에서 부활 후에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으며 (행 1:6-12), 그리고 이곳은 그분이 재림 때에 그분이 발을 딛고 서실 곳이기도 하다 (슌 14:4).

- C. The Olivet Discourse gives us the clearest teaching from Jesus on the signs of the end times. The primary passages that record this teaching are: Matthew 24, Mark 13, and Luke 21. These three passages, with the inclusion of Luke 17, give us the majority of what Jesus taught on the signs of the times.

예수님께서서는 감람산 설교를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신다. 이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24 장, 마가복음 13 장, 누가복음 21 장. 우리는 이 세 부분과 누가복음 17 장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신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다.

- D. The premier chapter of the four is Matthew 24. This is a great starting place for those who want to go deeper on the subject and is a critical passage because Jesus gives such clear insight into the prophetic signs that indicate His return.

위 구절들 중 가장 최고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24 장이다. 이 부분은 이 주제를 더 깊이 알아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시작점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때에 있을 예언적인 표적들에 대해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치셨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III. THE FIG TREE

#### 무화과 나무

<sup>32</sup> “Now learn this parable from the fig tree: When its branch has already become tender and puts forth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ear.<sup>33</sup> So you al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at the doors!<sup>34</sup> Assured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by no means pass away til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Mt. 24:32-34)

<sup>32</sup>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sup>33</sup>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sup>34</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 24:32-34)

- A. Jesus compared the signs that would indicate the timing of His coming with the budding fig tree. As summer approaches, the tree branch becomes tender as it begins to put forth leaves. These natural changes indicate the important change of season.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징조들을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것에 비유하셨다. 여름이 다가오면 이 나무의 가지는 부드러워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다. 이 자연적인 변화는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이다.

- B. The changes of the fig tree are *visible* and *discernable*. They appear *openly* in nature and are quite easily seen and perceived. A scientific eye is not required to observe their transformation.

무화과 나무에 생기는 변화는 눈에 보이며, 분별이 가능하다. 이 일은 자연계에 공공연히 드러나며,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인지가 가능하다. 이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다.

- C. Imagine you were on a deserted island and there was a fig tree present; you knew that when summer arrived, a ship would pass by the island. Your only hope for getting off the island would be to get aboard that summer ship.

당신이 무인도에 있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당신은 여름이 다가오면 그 섬에 배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름이 오는 이 배에 올라타는 것이다.

1. Those signs of summer leaves would become so important. With eager anticipation they would be watched. Think of the precedence those little leaves would take over other things!

이 여름을 알려주는 잎사귀는 매우 중요한 표적이 된다. 당신은 이 잎사귀를 보고자 기다릴 것이고, 이 잎사귀가 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잎사귀들이 여름을 알리는 다른 일들에 앞서서 생겨날 것을 생각해보라!

2. How intent would you be on watching that fig tree for the signs of seasonal change? You would not be content to go and look at the tree once every two or three weeks. Why? Because those first budding leaves could be missed.

당신은 계절이 바뀌는 징조인 이 무화과나무를 지켜보는 일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신은 2 주나 3 주에 한번 가서 이 나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서 처음 잎사귀가 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D. In like manner, the signs of the times will be visible and discernable *to those looking* for them. Jesus emphasized the visibility of many of these signs. He used parables and imagery that underlined the simplicity of knowing *to look* more than knowing *how to look*.

비슷하게, 시대의 표적들은 이 일을 **알아보길 원하는** 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표적들 중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임을 강조해놓으셨다. 그분은 **어떻게 봐야** 알 수 있는지가 아닌, **보면** 알게 되는 단순함을 나타내는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하셨다.

1. We observe the signs of the times with *consistency*. Just like the fig tree we go back to these foundational passages again and again. We observe them; we observe the events in the earth; we ask questions.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일관성**(역자주: 계속해서)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살펴듯이, 이 근간이 되는 구절들을 몇 번이고 다시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고,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2. We observe the signs of the times with *patience*. Meaning, we allow the Bible to *dictate the season* of Christ's return rather than *forcing current events* into the narrative of prophetic scripture.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즉,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적인 구절들이 말하는 스토리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즌을 확정 짓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E. *Looking for all these things*: Jesus said that when a generation saw *all these things* it would indicate to them that His coming was near – *at the doors*. What did Jesus mean by, “*all these things*?” He meant the indicative signs that would appear across the earth in the last generation before the coming of the Lord.

이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한 세대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것이 그분의 재림이 가까이, **문 앞에** 왔음을 알리는 것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은 마지막 세대에 그분의 재림에 앞서 이 징조들이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신 것이다.

- F. Christ indicated that believers are not only to watch for signs but *all of them happening simultaneously* on a global scale. The generation to observe those signs would not *pass away* (die) until His coming and the events related to it were completed. What He will accomplish will happen quickly.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이 징조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동시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 징조들을 지켜보게 되는 이 세대는 그분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일들이 끝나고 완성될 때까지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IV. UNDERSTANDING

깨달음, 지혜로운 자들

<sup>33</sup> *And those of the people who understand shall instruct many; yet for many days they shall fall by sword and flame, by captivity and plundering. (Dan. 11:33)*

<sup>33</sup>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한글 KJV: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단 11:33)

- A. Daniel prophesied a future people *who would understand* the prophetic season and give instruction to many. Before the coming of Jesus, the Holy Spirit will raise up men and women of understanding who will give insight to many believers and unbelievers.

다니엘은 이 예언적인 시즌을 **이해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칠 미래의 세대에 대해 예언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령님께서 많은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해줄, 지혜로운 남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 B. The people of understanding will instruct many concerning global trends and signs. This instruction will produce *courage* in the hearts of God’s people.

지혜로운 자들, 혹은 깨달은 자들은 전 지구적인 경향과 징조들에 대해 많은 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C. The early church took to this message, and it produced in them a *practical* and *separating* power. Paul prioritized the signs of the times to the Thessalonian church even though he was only with them a short time.

초대 교회는 이 메시지를 받아 들였고, 이 메시지는 그들 안에 **실제적이고 구별되는** 능력이 일어나게 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시간 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시대의 징조에 대해 가르쳤다.

<sup>1</sup>*But concerning the times and the seasons, brethren, you have no need that I should write to you. <sup>2</sup>For you yourselves know perfectly that the day of the Lord so comes as a thief in the night. <sup>3</sup>For when they say, “Peace and safety!” then sudden destruction comes upon them, as labor pains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shall not escape. (1 Thess. 5:1-3)*

<sup>1</sup>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sup>2</sup>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sup>3</sup>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1-3)

1. The signs of the times are *practical* in their prophetic nature.

시대의 표적, 징조들은 그 예언적인 성격 때문에 **실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 a. They tell us what to do: to **watch and pray** (Mt. 24:42, 43; 25:13; Mk. 13:33, 35, 37; Lk. 21:36, 12:39; 1 Pet. 4:6-8; Rev. 3:2, 3), to **be sober** (1 Thess. 5:6; 8; Titus 2:11-13; 1 Pet. 1:13); **to repent** (Rev. 2:5, 16, 22; 3:3, 19); **be zealous in good works** (Rev. 2:5); **to remain faithful** in the midst of pressure (Rev. 2:10, 26).

이 징조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준다: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마 24:42, 43; 25:13; 막 13:33, 35, 37; 눅 21:36, 12:39; 벰전 4:6-8; 계 3:2, 3), **정신차리고 깨어 있을 것**을 (살전 5:6; 8; 딤후 2:11-13; 벰전 1:13); **회개할 것**을 (계 2:5, 16, 22; 3:3, 19); **선한 일에 열심을 낼 것**을 (계 2:5);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되게 서 있을 것**에 (계 2:10, 26) 대한 것이다.

- b. They empower the church with an *urgency* that is reflected in both godliness and mission.

이 징조들은 교회로 하여금 **긴급함**에 대해 깨어 있을 수 있게 하며, 교회가 경건하며 선교의 사명에 힘을 다하도록 한다.

- c. They give us knowledge concerning how to prepare practically with action. The knowledge of the flood alone would not have motivated Noah to build an ark. The knowledge of the coming crisis has practical application that must be taken seriously.

이 징조들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과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준다. 노아가 홍수가 온다는 사실 그 자체를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그가 방주를 지을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다가올 재난에 대해 알게 되면,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2. They cause a *separating* power that is often overlooked.

이 징조들은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은 간혹 간과되곤 한다.

<sup>4</sup>*Come out of her my people...(Rev. 18:4)*

<sup>4</sup>...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 (계 18:4)

- a. The Lord called the believers **out** of something as much as He called us **into** something—being a part of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주님은 성도들을 **어떤 곳으로**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어떤 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시기도 한다.

- b. If there is not a separation from the world, then how can there be a wholehearted commitment to Christ and His commands? Has not the gospel separated us to the work and service of the Lord? Is that not the purpose of the prophetic church?

만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전심을 다 드리며 헌신하는 것은 가능해지지 않는다. 복음은 주님의 나라의 일과 그분을 섬기는 곳에 대해 우리를 구별했다. 예언적인 교회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 D. In Luke 12 and Mt. 24, the “sin” of the servants lies not in the knowledge of the coming of the Master but *in their response*. Christ exhorted believers *to watch*.

누가복음 12 장과 마태복음 24 장에서, 종들의 “죄”는 주인이 올 것을 아는지에 있지 않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다.